

순위	업체명	지점업종	온실가스배출량(tCO2)	비율(%)
1	포스코	산업	75,699,968	12.89
2	한국수력원자력	전환	42,521,216	7.24
3	한국농수산물	전환	34,905,112	5.95
4	한국중부발전	전환	34,775,156	5.92
5	한국수력원자력	전환	30,422,389	5.18
6	한국수력원자력	전환	29,006,534	4.94
7	현대제철	산업	28,623,105	4.88
8	삼성전자	산업	12,531,900	2.13
9	영남발전	산업	9,993,739	1.68
10	웅진	산업	9,573,376	1.63
11	셀지화학	산업	8,176,631	1.39
12	지에스에너지	산업	7,788,771	1.33
13	현대수력원자력	산업	6,934,957	1.18
14	에스케이에너지	산업	6,920,461	1.18
15	지에스동해전력	전환	6,797,741	1.16
16	삼표식품	산업	5,984,233	1.02
17	롯데케미칼	산업	5,570,916	0.95
18	포스코에너지	전환	5,442,966	0.93
19	한국지엠(일곡공장)	전환	5,214,198	0.89
20	한국지엠	산업	4,871,448	0.82
	전체 배출량		587,096,541	100

기후위기 극복 위해 조속한 '탈석탄' 절실



“기후위기 시대, 석탄 끄고 재생에너지 켜자”



“작지만 우리 손으로 환경을 지키고 싶어요!”

- ▶ 발행일 2021. 9.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tem.or.kr
- ▶ http://dangjin.ktem.or.kr

- 3 이달의 시
| 막힌 보 / 이재성
- 4 지역환경초점1
| 기후위기 극복 위해 조속한 '탈석탄' 절실
- 6 지역환경초점2
| 불허가 됐던 석우리 하수슬러지 공장 '재신청'
- 8 지역환경초점3
| 당진시 불산공장 건축허가 '불허'
- 9 지역환경초점4
| 당진시-현대제철, 환경개선 협의회 열어
- 10 지역환경단신1
| 철탑공사 방해로 2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
- 11 지역환경단신2
| “기후위기 시대, 석탄 끄고 재생에너지 켜자”
- 12 지역환경단신3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 13 지역환경단신4
| “작지만 우리 손으로 환경을 지키고 싶어요”
- 14 전국환경초점1
| '2050 탄소중립' 한다더니... '포기' 시나리오 검토하는 탄중위
- 16 사진으로 보는 올해의 기후위기
- 18 전국환경초점2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 19 8월 살림살이
- 20 8월 활동소식
- 22 9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막힌 보

이재성

닳쳐온 여름
 끓는 태양 태풍과 물난리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보
 지은이 없이 지어진 이름 홍물보
 오염보 고장보 결함보 무늬보 낭비보
 물은 많은데 점령한 건 녹조
 점령은 전쟁용어 점령해서도
 점령당하면 죽음인데

너와 나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 강남 비 강남
 부자아파트 가난한아파트
 꼬맹이들까지 꼬드겨 막은 보
 더불어 함께 라는 호수에는
 벌써 녹조가 짙어 아사 직전인데
 개방하자 조절하자 허물자 무성하지만
 암 덩어리 놔두고 검사만 해대는 꼴

그냥 놔두라 자유롭게
 그냥 놔두라 자연스럽게
 이미 난 길로 견고 싶고
 이미 난 물길로 흐르고 싶다

작가소개 - 이재성

순성면 아찬리 출신, 종합문예지 월간 <문학세계>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
 <운영담에 든 가을> 외 6편을 월간 <문학세계> 8월호에 응모한 가운데 <겨울나기>, <봄바람>, <운영담에 든 가을> 3편 당선
 현재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이며 당진참여연대 회장을 역임, 당진온누리합창단 단장으로 활동중이다.

기후위기 극복 위해 조속한 '탈석탄' 절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동서발전 3위, 현대제철 7위
배출량 상위 7개 업체 전체 배출량의 47% 차지

2020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당진화력 을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이 전국 3위, 현대제철 이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0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보면 한국동서발전은 3490만5112톤을 배출해 전체 배출량의 5.95%로 전국 3위, 현대제철은 2862만 3105톤을 배출해 전체 배출량의 4.88%로 전국 7위를 차지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현대제철 모두 전년 대비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현대제철은 2019년 배출량 2224만5165톤 보다 637만7940톤이 늘어났고 한국동서발전은 2019년 배출량 3900만1786톤 보다 409만6674톤이 줄었다.

현대제철 부생가스 발전소인 현대그린파워는 2019년 1083만5566톤으로 전국 9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톤으로 발표됐다.

가스복합화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을 운영하는 GS-EPS는 2020년 배출량 254만1330톤으로 36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241만 3463톤 보다 12만7867톤 이 늘었다.

현대제철은 2019년 대비 고로 생산량은 6.3%, 전기로 생산량은 15.0%가 줄어들었으나 온실가

스 배출량은 크게 늘어 28.7%가 증가했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이유는 현대그린파워와 2020년 10월 1일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현대그린파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대제철 자가발전에만 따른 배출로 계산돼 현대제철 배출량에 합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동서발전의 배출량이 2019년에 비해 10.5%가 감소한 이유는 이용율(가동율) 하락이 주 원인으로 여겨진다. 동서발전의 주 사업장인 당진화력은 2020년 이용율이 2019년에 비해 8.44% 줄어들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1위부터 7위까지 7개 업체가 모두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석탄화력, 제철 관련 업체다. 이들 석탄 대량 사용 7개 업체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7592만3680톤으로 전체 배출량 5억 8709만6541톤의 4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인류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석탄화력발전, 제철소 등의 석탄 사용이 기후위기의 주범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한 탈석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글: 사무국]

업체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21.6.25 명세서 기준)

순위	업체명	지정업종	온실가스배출량(tCO2)	비율(%)
1	포스코	산업	75,669,968	12.89
2	한국남동발전	전환	42,521,216	7.24
3	한국동서발전	전환	34,905,112	5.95
4	한국중부발전	전환	34,775,156	5.92
5	한국서부발전	전환	30,422,589	5.18
6	한국남부발전	전환	29,006,534	4.94
7	현대제철	산업	28,623,105	4.88
8	삼성전자	산업	12,531,900	2.13
9	쌍용양회공업	산업	9,868,739	1.68
10	S-Oil	산업	9,579,376	1.63
11	엘지화학	산업	8,176,631	1.39
12	지에스칼텍스	산업	7,788,771	1.33
13	현대오일뱅크	산업	6,934,967	1.18
14	에스케이에너지	산업	6,920,461	1.18
15	지에스동해전력	전환	6,797,741	1.16
16	삼표시멘트	산업	5,984,233	1.02
17	롯데케미칼	산업	5,570,916	0.95
18	포스코에너지	전환	5,442,966	0.93
19	한국지역난방공사	전환	5,214,198	0.89
20	한화토탈	산업	4,801,448	0.82
전체 배출량			587,096,541	100

상위 20개 업체 전년 대비 배출량 증감

(2021.6.25 명세서 기준)

순위	업체명	지정업종	2019년 온실가스배출량 (tCO2)	2020년 온실가스배출량(tCO2)	전년 대비 배출량 증감 (tCO2)
1	포스코	산업	81,481,198	75,669,968	-5,811,230
2	한국남동발전	전환	53,399,748	42,521,216	-10,878,532
3	한국동서발전	전환	39,001,786	34,905,112	-4,096,674
4	한국중부발전	전환	34,269,302	34,775,156	505,854
5	한국서부발전	전환	34,673,737	30,422,589	-4,251,148
6	한국남부발전	전환	36,670,122	29,006,534	-7,663,588
7	현대제철	산업	22,245,165	28,623,105	6,377,940
8	삼성전자	산업	11,131,587	12,531,900	1,400,313
9	쌍용양회공업	산업	10,794,303	9,868,739	-925,564
10	S-Oil	산업	9,603,008	9,579,376	-23,632
11	엘지화학	산업	8,517,502	8,176,631	-340,871
12	지에스칼텍스	산업	8,047,242	7,788,771	-258,471
13	현대오일뱅크	산업	7,125,337	6,934,967	-190,370
14	에스케이에너지	산업	7,248,678	6,920,461	-328,217
15	지에스동해전력	전환	6,215,067	6,797,741	582,674
16	삼표시멘트	산업	7,065,280	5,984,233	-1,081,047
17	롯데케미칼	산업	6,801,357	5,570,916	-1,230,441
18	포스코에너지	전환	4,897,849	5,442,966	545,117
19	한국지역난방공사	전환	5,635,192	5,214,198	-420,994
20	한화토탈	산업	4,247,696	4,801,448	553,752

불허가 됐던 석우리 하수슬러지 공장 ‘재신청’

업체 “연구기관 의뢰해 시설 보완 등 점검...피해 없는 운영할 것”
비대위 “결사반대”...당진시에 진정서 제출하며 강력대응 시사



8월 5일 황성렬 공동의장이 석우리 마을회관을 찾아 대책위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합덕 석우리 하수슬러지 공장 건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체 측에서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로 반려받았던 건축허가를 당진시에 지난 2일 다시 신청했기 때문이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당진시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합덕 석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업체 입주 허가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그리고 지난 1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반려 통보를 함에 따라 당진시는 업체 측에 건축 불허가 통지를 내렸다.

당시 반려된 사유로는 △사업부지 인근 지하수를 취수장으로 하는 마을 상수도와 합덕 취수

장이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원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나, 평가서에 지하수 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이 누락 △폐기물 입고·보관·가공 및 제품 보관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 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해 폐수, 침출수 등이 유출되어 인근 석우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 △사업부지 인근 마을은 축사,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악취로 인해 정주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악취

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 입주할 경우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 있음 등이다.

이후 A업체는 60일 이내에 시에 이의제기를, 90일 이내에는 법적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는 이의제기와 항소를 하지 않고, 반려된 내용에 대해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으며, 수질오염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보완을 다시 점검했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건축허가 재신청은 지난 1월 금강유역청에서 반려했던 부분에 대해 연구기

관에 의뢰해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한 것”이라며 “하수슬러지 공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시설이라는 점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해 그동안 주민들과 몇 차례 만났지만, 협의를 하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수질오염이나 악취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 허가 재신청을 받은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1월에 불허가 통보를 했다고, 이번에도 불허가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신청된 서류에 대해 건축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법에 근거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 부분은 금강유역청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유역청에서 회신을 받아야 최종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8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업체에서 건축 허가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우리 주민들은 당진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석우리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마을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문제, 합덕취수장 오염문제, 악취발생 등 문



황성렬 공동의장이 석우리대책위와 함께 합덕배수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농산물 수확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우려된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해 당진시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줄 바란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정주 비대위원장은 “업체가 항소를 했다면 법적으로 판가름을 낼 수 있었지만 유예기간은 끝나버렸고, 업체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다시 신청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진시는 마을에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악취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주민들을 위해 대응해 달라”며 “공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 석우리 주민들이 건강권, 생존권 등 모든 부분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 당진신문, 사진: 사무국]

당진시 불산공장 건축허가 ‘불허’

“불산공장 안전성 확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환경운동연합 “시민 건강·안전 위한 조치 환영”



불산공장 램테크놀러지 조감도

에 대해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당진시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산공장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램테크놀러지는 석문산단 입주 추진을 중단하고 위험한 화학물질 이동을 최소화 하도록 수요지 주변으로 이

당진시가 불산공장 램테크놀러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해 12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며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보완과 재보완을 잇따라 요구했으며, 지난 7월 9일에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지난 4일 불허 처분을 내렸다.

당진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우려해왔던 불산공장의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진시 방침에 대해 램테크놀러지 측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은 이번 당진시의 불산공장 불허 결정

전하라”고 촉구했다.

램테크놀러지가 생산하는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반도체 산업에 필수 재료다. 램테크놀러지는 금산군 군북면에 있던 기존 공장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신축 이전하고자 지난 2019년 8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를 신청했다.

공장 규모는 부지면적 2만3948㎡(약 7200평), 건축면적 1만2264㎡(약 3700평)이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지난해 12월 램테크놀러지의 입주를 승인했으나 당진시와 지역주민들은 불산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며 석문산단 입주를 반대해 왔다.

[출처 : 당진시대]

당진시 - 현대제철, 환경개선 협의회 열어 시안(CN) 유출 등 향후 계획 논의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24일 당진시청에서 현대제철 환경개선 협의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략)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와 대기질 측정 결과 및 악취 측정망 설치에 따른 측정자료 전송 현황을 보고하며, 특히 작년 현대제철 매립장 주변 지하수 관측정에서 시안(CN)이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대제철의 자가매립장 주변 지하수의 시안 농도는 긴급 확산 방지 조치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청의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반영해 오염정화 및 차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계획으로 기존 34개였던 지하수 조사지점을 59개로 확대하고 월 1~2회 측정해 지하수 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양수처리를 통한 오염원 억제와 농도 저감, 오염된 지하수 확산 차단과 더불어 고오염 지역에 화학적 산화 공법을 적용해 정화 조치를 하는 한편 매립장 경계에 지하수 암반까지 연직 차수벽(옹벽)을 설치해 오염물질의 누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매립장은 2022년 1월 18일까지 6개월간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반입되어야 할 폐기물은 외부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와 같은 확산 차단 및 정화 조치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2단계 자가 매립장을 조기 완공해 매립물의 이적 처리 및 하부구간에 대한 조사와 정화, 완벽한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한광현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현대제철에 환경개선 협의회를 비롯한 다각적인 주민 소통창구를 통해 이번 매립장 지하수 침출수 시안유출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비롯, 각종 이슈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대제철 환경개선협의회는 환경 현안 및 현대제철 환경개선 등에 대한 상호 간 의견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진시, 당진시의회, 충남도, 시민단체, 주민대표, 현대제철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해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당진신문]

철탑공사 방해로 2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

한전 도급업체, 우강농민 6명 대상 소송
업체 “철탑 공사 방해해 인건비·장비비 손실”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주민들 “주민 겁박 한전 행태 도 넘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철탑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진행하고 있는 도급업체 2곳에서 철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우강지역 농민 6명을 상대로 2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신평면 신당리에 33번 송전철탑 공사가 강행되자, 향후 우강면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우강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우강농민들은 논에 진입한 굴삭기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철탑 건설사업공사를 맡은 한전의 도급업체 2곳에서 공사를 막은 우강농민 6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농민 6명은 굴삭기를 몸으로 막아 세우고, 경찰들이 출동해 해당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드러눕고 연행에 거칠

게 저항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위력을 행사해 공사를 방해했다”면서 “방해행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인건비와 장비대 등 큰 손실을 입었으며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부담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공사 방해로 인해 차량, 장비, 인력 등 약 2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송전탑 건설 부지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위반할 경우 매일 최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도급업체를 통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며 주민들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강 주민들은 “주민들을 겁박하는 한전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십시일반 부장리송전탑 반대대책위에 후원금을 보내 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출처: 당진시대]

“기후위기 시대’ 석탄 끄고 재생에너지 켜자”

당진환경연합 에너지의 날 기념 탈석탄 기후행동 펼쳐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은 8월 20일 당진화력발전소와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기념해 “기후위기 시대, 석탄 끄고 재생에너지 켜자”를 주제로 한 이날 당진 탈석탄 기후행동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인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에서 함께 진행된 충남 동시다발 탈석탄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당진 탈석탄 기후행동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 외에도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과 정의당 당원,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조속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다.

탈석탄 기후행동을 주최한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상임의장은 “기후위기 주범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이며 당진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라며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모두 폐쇄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 기념일로 올해 제 18회 에너지의 날 기념 행사는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8월 20일(금) 저녁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가 진행됐다.

[글 사무국]



지난 8월 20일 당진화력발전소와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롯데마트 당진점 앞 1인 시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전국 50곳 동시다발 집중행동



당진환경운동연합은 8월 30일 롯데마트 당진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인 롯데마트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0년, 제품 판매 이후 28년... 피해 해결, 진상 규명, 재발 방지 그 무엇하나도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8월 30일 롯데마트 당진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인 롯데마트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는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국 50곳과 해외 5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년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일환이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기업의 배보상을 요구하고 정부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

하기 위한 행동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제적인 사건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다수가 사망한 참사이다.

올해 7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충남에서 211명, 당진에서 16명이고 이중 피해 구제 인정자는 충남 134명, 당진 8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환경산업기술원 공동조사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충남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6만4808명이고 건강피해 경험자는 3만8859명이다. 전체 피해경험자 중 0.5%에 불과한 211명만이 피해 신청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선언했고 재판부는 가해기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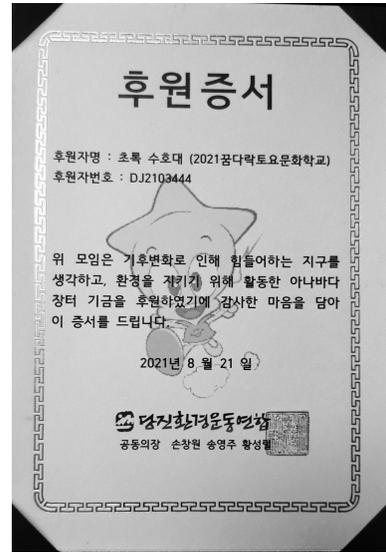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렬 공동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지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부는 이제 사회적 참사를 덮으려고만 한다”며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비슷한 사회적 참사가 재발될 수도 있다.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글: 사무국]

“작지만 우리 손으로 환경을 지키고 싶어요!”

어린이 환경사랑 연극 모임 ‘초록수호대’
당진환경연합에 벼룩시장 운영수익 전달



초록수호대 어린이들이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모습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초록수호대에 보낸 후원증서

「초록수호대는 당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꼬마 환경운동 예술가입니다.

연극이라는 특성을 살려 아이들 스스로 ‘고통 받는 바다생물’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배출 하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주변의 자연과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주변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그 영향력이 가족

으로, 주변 친구들로,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고장으로,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 체험활동으로 당장체험이라는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작게나마 환경단체에 기부할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소중한 기금을 지구를 위해 좋은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글: 문화예술창고 '마주' 발체,

‘2050 탄소중립’ 한다더니… ‘포기’ 시나리오 검토하는 탄중위

시나리오 초안 3개 공개…2개가 ‘탄소중립 포기안’
탄중위 “EU·영국도 우리처럼 복수 시나리오 제시”
기후단체 “대통령, 2050 넷제로 선언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민간위원장)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시나리오 3개안 중 2개안이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하는 내용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나머지 1개안 역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 및 휘발유·경유 차량 배출 시점을 담고 있지 않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도 뒤로 미뤄놓았다. 기후환경단체 등은 탄소중립을 내걸고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사실상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3개 초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각각 2540만톤(1안), 1870만톤(2안), 0(3안)을 목표로 한다. 2018년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이었는데, 이를 96.3~100% 줄이는 방안이다.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배출원인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1안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곳과 가스(LNG)발전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다. 전체 발전량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9.5%(석탄 1.5%, 가스 8%)를 차지한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보다 덜한 가스발전은 유지하는 방안(화석연료 비중 7.6%)이다.

1·2안에 따른 205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4620만톤, 3120만톤이다.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를 기술적으로 포집·저장하거나 산림을 통해 흡수·상쇄하더라도, 그 양이 많아 1·2안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석탄·가스발전 유지가 탄소중립 실패의 주요 이유인 셈이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3안은 석탄·가스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70.8%)을 1·2안보다 12~14.2% 끌어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등은 정부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출범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탄소중립위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위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시나리오(1안)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수명 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50년까지 정상가동하는 발전기 7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보상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를 가 정해 시나리오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원전이 2050년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안 7.2%, 3안 6.1%로 비슷했다. 탄소중립위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원전이 화석연료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안전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 장기간,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2050년까지 일정 정도 역할은 계속 유지할 전망”이라고 했다.

3개 시나리오에서 2050년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10만톤으로 모두 동일하게 잡혔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업종인 철강에는 100%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에는 수소연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기준 2억 6050만톤에서 79.6%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송 부문의 경우 1·2안은 전기·수소차 76% 이상 보급, 나머지 차량은 대체연료(E-fuel)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배출량 981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를, 3안은 전기·수소차를 97% 이상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80만톤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상쇄 부문)에 대해 탄소중립위는 “강화된 산림 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은 2018년 4130만톤에서 1390만톤으로 줄으는다”고 했다. 나이든 나무를 베어내고 신규 조림이 필요하다

는 산림청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민동산 논란’과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보완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탄소중립위는 “3가지 시나리오는 각기 다른 과정과 전체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기술적 상황,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게 된다”고 했다. 탄소중립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 사례를 들었다. 영국 역시 3개 시나리오(80% 감축, 96% 감축, 넷제로)를, 유럽연합은 3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기후위기 대응 후발주자이자 석탄발전 의존도가 큰 우리 상황에서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지나치게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탄소중립위는 3개 시나리오 초안을 토대로 산업계·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와 각 부처 의견 수렴,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뒤 정부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1일 영국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황에서 시나리오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탄소중립위원은 “너무 늦게 위원회가 출범해 넷제로를 담은 3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다. 민간위원만 77명이라 신속하게 작업하고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다. 공론화 시간이 없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사진으로 보는 올해의 기후위기

사진으로 보는 올해의 기후위기



**사진으로 보는
올해의 기후위기**

산불
그리스

30년만에 최악의 산불 피해로, 2주 이상 계속되며 수천명이 피해

출처: ApecWeather

산불
터키

남부 해안을 따라 불길의 길이가 10일 이상 지속, 수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

출처: skynews
출처: euronews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LA 면적보다 큰 산림 소실, 역대 10대 대형산불 중 6개가 지난 1년동안 발생.

출처: FRANCE24

사진으로 보는 올해의 기후위기



폭염

북미 서부지역은 해당 지역을 둘러싼 열돔으로 폭염 발생
열돔현상 :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지열의 데워진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뭄되는 현상

폭염

캐나다

기온이 49.9도의 사상 최고 기온을 3일 연속 갱신

ALL-TIME RECORD HIGH FOR CANADA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UNITED STATES
PACIFIC OCEAN
출처: AccuWeather

폭염

미국

100여년만의 폭염으로 2천만명에게 폭염경보와 주의보

FREE WATER
HEAT RELIEF

Projected Change in Number of Days Above 90°F
Mid 21st Century, Higher Scenario (RCP8.5)

Weighted Multi-Model Mean

0 10 20 30 40 50 60 70

출처: C2ES

고온과 폭염의 이유는?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되는 탄소들로 인해
고온, 폭염, 산불 등의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퇴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녹색성장기본법 폐지·통합...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2050 탄소중립을 향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화를 마쳤다.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 최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통합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법에는 기후영향평가제 도입을 비롯해 기후대응기금 신설,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했다. 특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이 마련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까지 완성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더불어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

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에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명시했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한 것은 물론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과 함께 지원센터도 설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처럼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와 함께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중앙정부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각 지방별 기본계획 마련과 지방 탄소중립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간 협력체계도 유지했다. [출처:이투스발체]

2021년 8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7월 이월금	7,720,496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7,279,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항집계]	7,279,000	
후원금	일반후원	170,00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0	후원금
	[항집계]	170,000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0	공모사업
	기타사업	0	기타사업 수입
	[항집계]	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예금이자
	[항집계]	0	
월수입 총액	계	7,449,000	
수입 총액	계	15,169,496	전월이월금 포함

지출액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477,77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655,90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232,5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항집계]	1,366,170	
인건비	급여	4,330,000	상근자 2인
	상여	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50,470	
	[항집계]	5,141,310	
사업비	일반, 공모사업	275,50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 회원사업	836,76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 조사사업	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362,97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0	후원의밤
	[항집계]	1,475,230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100,000	장기발전기금
	[항집계]	100,000	
지출총액	계	8,082,710	

2021년 8월 잔액 7,086,786



서천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연대 1인시위

8월 13일 서천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촉구를 연대하기 위해 서천화력발전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산 민항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8월 18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환경연합 주관으로 '서산민항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덕 석우리 대책위 폐기물 시설 관련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면담

8월 19일 당진시청에서 석우리 대책위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면담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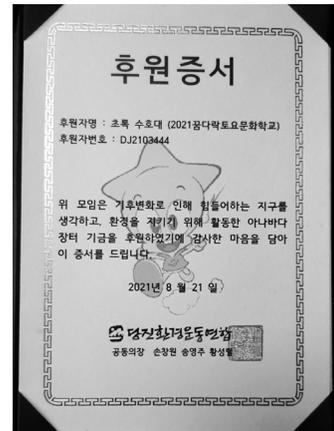
'석탄 끄고 재생에너지 켜자!' 에너지의날 캠페인

8월 20일 당진화력발전소 앞과 당진시 구터미널 로터리 앞에서 '석탄 끄고 재생에너지 켜자!'라는 주제로 에너지의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초록수호대' 후원증서 전달

8월 20일 극단 '마주'에서 진행한 어린이 모임으로 '초록수호대'가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후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후원증서를 전달 하였습니다.



늘푸른물결'소식지 편집회의

8월 24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9월 소식지 편집회의를 열었습니다.



01 일반사업

- ❖ 9/01(수) 10:30 성남시민라디오 석탄화력 관련 인터뷰
- 14:00 환경운동연합 재생에너지협의회 회의 - 온라인
- 15:00 환경운동연합 대선과제 정책워크숍 - 온라인
- ❖ 9/02(목) 11:00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13:00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의 - 충남지속협
- 16:00 당진시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9/03(금) 14:00 기후위기 충남행동 운영위 회의 - 온라인
- ❖ 9/04(토) 14:30 환경운동연합 전국임시대표자회의 - 온라인
- ❖ 9/06(월) 11:00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사무실
- 14:00 제2회 푸른하늘의 날 기념 미세먼지 토크콘서트 - 충남도서관
- ❖ 9/07(화) 16:00 당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온라인
- ❖ 9/08(수) ~ 9/09(목) 2021 탈석탄-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 스포라스 리솜
- ❖ 9/10(금)~9/11(토) 충남환경교육한마당 - 당진시청
- ❖ 9/11(토) 14:00 환경운동연합 임시전국대의원대회 - 온라인
- ❖ 9/13(월) 16:00 석탄을 넘어서 전력계통 세미나 - 온라인
- ❖ 9/15(수) 14:00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포럼 - 온라인
- ❖ 9/16(목) 14:00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9/25(토) 기후위기 비상행동 - 미정
- ❖ 9/26(일)~9/27(월)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강릉캠페인 - 강릉 안인화력
- ❖ 9/28(화) 14:00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 온라인
- ❖ 9/29(수) 11:00 금강유역환경회의 운영위 회의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16: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총회 - 내포혁신플랫폼
- ❖ 9/30(목) 16:00 당진시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9/28(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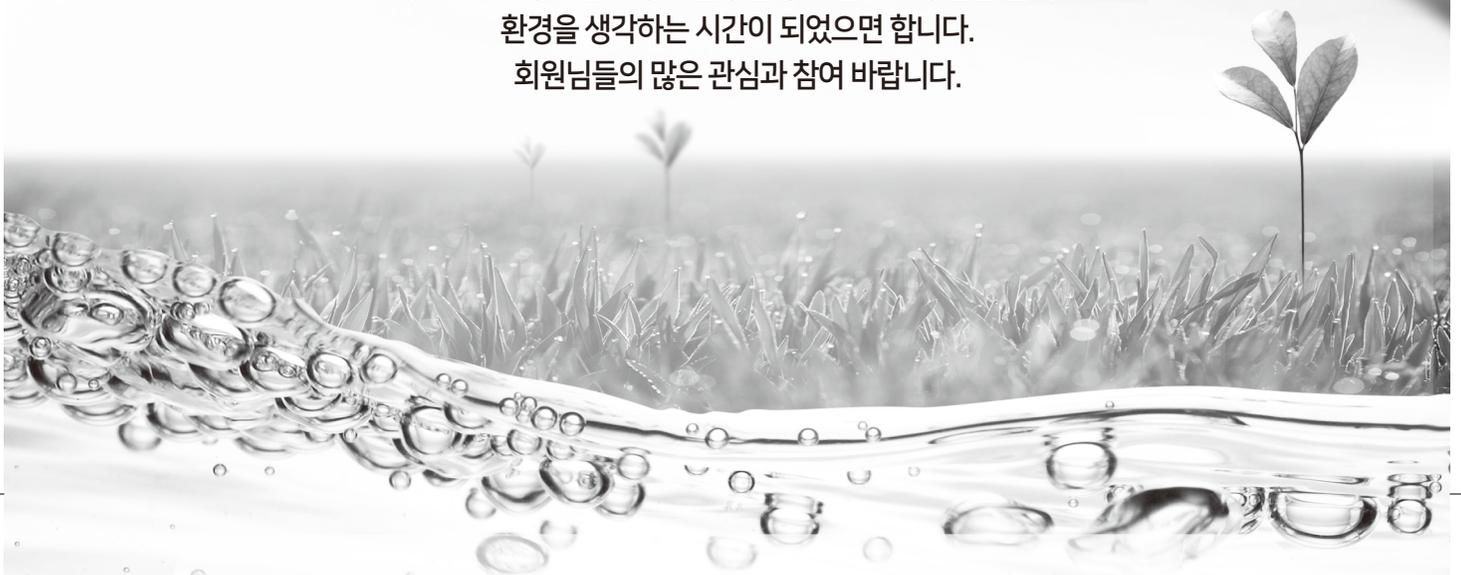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옥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권기 김기권 김기동 김길자 김길찬 김남조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범석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승택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자 김윤태 김은옥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태기 김필배 김하정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성호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래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영환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태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 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차옥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지현 선 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은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승보 심재권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동책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신 안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일영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미화 유 성 유영석
 유중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광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영우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선 이정옥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준호 이증영 이창규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해은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호선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중환 정중섭
 정지섭 정찬관 정치웅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신형 조용재
 조한영 조현수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준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목 최연이 최오상 최원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옥 현 민 호상기 호용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욱 홍성호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귀염둥이아띠어린이집 당진여객(주)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

당신의 바다와 호수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정화 활동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자	장소	세부 내용	비고
10월 02일(토)	삽교호 주변	삽교호 주변 쓰레기 청소	
10월 30일(토)	미정	해안가 쓰레기 청소	

※ 일자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세부계획

- 출발 장소 : 당진문예의 전당 / 오전9시
- 세부 일정
 - 09:00~09:30 플로깅 장소로 이동(버스)
 - 09:30~11:30 플로깅 진행
 - 11:30~12:00 도착
- 참가신청 : 선착순 35명(041-355-7661)
- 자원봉사 3시간 적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으로 발간되었습니다.